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金達來*

서론

동양의학의 방법론의 문제로 인해 어떤 학설이 발표되더라도 아무런 비판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관례였는데 비해, 사상체질의학은 그 이론의 명확성과 약물치료나 체질진단의 결과의 단순성 때문에 1894년 동의수세보원이 발표된 이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타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애정 어린 눈으로 염려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단지 모르는 것에 대한 반감까지 실린 눈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내부에서도 이 학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보다는 배척과 경계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학계 내부의 요구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요청에 의해 사상체질의학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수많은 언론과 방송매체에서는 앞다투어 사상체질의학의 특징과 적용방법을 다루게 되었고 이 학문의 문제성을 한의학 전공자인 한의사들만큼이나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상황 아래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공통된 견해는 체질감별방법의 문제성이다. 사상체질의학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은 체질감별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으나, 비판을 목적으로 질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상체질의학의 전문가들조차 체질감별결과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성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학문도 저절로 다듬어지지 않는다. 그 분야의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방면에서 거친 면면을 다듬고 허술한 부분을 메워서 온전한 것으로 발전시켜왔다.

분명 사상체질의학은 대단한 이론임에 틀림없음을 학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체질감별 방법입니다. 이제마 선생은 체질 감별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이 학문이 하나의 가설로 끝나지 않고 의학계에 공인받고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체질감별 방법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유의성있는 이론들을 발표했다. (1,2,5,6,9,10,11,12,13,14,15,16,17,18) 이런 이론들은 그후 많은 추시를 통해서 너무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된 것도 있고 매우 가치 높은 것으로 인정된 것도 있었다.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상체질의학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학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비교되고 검증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체질진단과 전문가가 체질진단한 것의 연관성을 통계처리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대상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4학년에 재학중인 24세 내외의 남녀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남자:62명, 여자:3명).

2. 체질감별방법

1) Y1측을 설문지로 체질감별한 것으로 이것은 송³⁾의 방법에 따라 설문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체질을 조사대상자의 체질로 정했다. 단 이 중에서 동일한 점수를 두 체질 이상에서 얻은 경우는 이의 방법에 따라 체질을 감별하고 조사대상자의 체질로 확정했다.

2) Y2측을 전문가가 체질감별한 것으로, 이것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의학의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동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사상체질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사상체질의학을 강의하고 동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의학과 과장으로 사상체질의학을 치료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의사가 동의수세보원 사상인변증론과 동의수세보원 전편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체질진단한 것이다.

3. 통계처리

Y1측을 설문지로 체질감별 한 것으로, Y2측을 전문가가 체질감별한 것으로 했을 때, 두개 사이의

연관성 존재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Chi-Square test⁸⁾를 이용했다.

연구결과

Y1측은 설문지로 체질감별 한 것으로 이것은 송³⁾의 방법에 따라 설문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체질을 조사대상자의 체질로 정했다. 단 이 중에서 동일한 점수를 두 체질 이상에서 얻은 경우는 이의 방법에 따라 체질을 감별하고 조사대상자의 체질로 확정했다.

Y2측은 전문가가 체질감별한 것으로서, 이 두가지 방법으로 체질감별 진단한 것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통계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OF Y1 BY Y2

Frequency Percent Row Pct ColPct	Y1			Total	Y2
	2	3	4		
1 0.00	0 0.00 0.00 0.00	1 1.54 100.00 3.33	0 0.00 0.00 0.00	1 1.54	
2	9 13.85 52.94 75.00	5 7.69 29.41 16.67	3 4.62 17.65 13.04	17 26.15	
3	1 1.54 4.00 8.33	23 35.38 92.00 76.67	1 1.54 4.00 4.35	25 38.46	
4	2 3.08 9.09 16.67	1 1.54 4.55 3.33	19 29.23 86.36 82.61	22 33.85	
Total	12 18.46	30 46.15	23 35.38	65 100.0	

STATISTICS FOR TABLE OF Y1 BY Y2

Statistics	DF	Value	Prob
Chi-Square	6	61.291	0.000
Likelihood Ratio Chi-Square	6	62.579	0.000
Mantel-Haenszel Chi-Square	1	22.795	0.000
Phi Coefficient		0.971	
Contingency Coefficient		0.697	
Cramer's V		0.687	

Sample Size=65

Warning:50% of the cells have expected counts less than 5.

Chi-Square may not be a valid test.

고찰

사상체질의학은 대단한 이론임에 틀림없음을 학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체질감별 방법입니다. 이제마 선생은 체질감별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이 학문이 하나의 가설로 끝나지 않고 의학계에 공인 받고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체질감별방법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유의성 있는 이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 6,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런 이론들은 그후 많은 추시를 통해서 너무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된 것도 있고 매우 가치 높은 것으로 인정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송3)의 책에 실린 “자가 보고형 설문지”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마선생이 체질감별을 위해 제시한 여러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설문지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면에 치우친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저자는 두개의 방법으로 각 체질별 연관성 존재에 대한 검증을 위

해 X2-TEXT2의 방법으로 통계처리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Y1축을 설문지로 체질감별한 것으로, Y2축을 전문가가 체질감별한 것으로 했을 때, TABLE에서 보면, 설문지로는 태양인체질이 1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0명이었고 그중에서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양인으로 판명된 것은 1명도 없었다. 이 때 설문지로 체질감별한 것에서 태양인이 1명 나온 것은 유의성이 없다.

TABLE과 FigI-1, I-2에서 보면, 소양인에 대한 ROW PERCENT(=설문지로는 소양인체질이 17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12명이었고, 그중에서 9명은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음. 이 때 17명에 대한 9명)는 52.94%로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설문지로는 소양인 체질이 17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12명이었고 그중에서 9명은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양인으로 판명되었음. 이 때 12명에 대한 9명)는 75.00%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TABLE과 FigII-1, II-2에서 보면, 태음인에 대한 ROW PERCENT(=설문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5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30명이었고, 그중에서 23명은 설문지와 전문가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음. 이때 25명에 대한 23명)는 92.00%로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설문지로는 태음인 체질이 25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30명이었고, 그중에서 23명은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태음인으로 판명되었음. 이 때 30명에 대한 23명)는 76.67%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TABLE과 FigIII-1, III-2에서 보면, 소음인에 대한 ROW PERCENT(=설문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22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23명

이었고 그중에서 19명은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음. 이 때 22명에 대한 19명)는 86.36%로 상당히 높은 신뢰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설문지로는 소음인 체질이 22명이었으나 전문가가 체질감별했을 때는 23명이었고 그중에서 19명은 설문지와 전문가 체질감별 모두에서 소음인으로 판명되었음. 이때 23명에 대한 19명)는 82.61%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소양인으로 체질감별하는데는 확실하지 않으나 태음인과 소음인을 체질감별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Fig IV에서 소양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9명을 차지해 13.85%, 태음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23명을 차지해 35.38%, 소음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19명을 차지해 29.23%, 태양인은 65명 중에서 1명도 없어 0.00%로 나타났다. 이 때 설문지와 전문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14명으로 전체 65명의 21.90%를 차지했다.

이상과 같이 송³⁾의 자가보고형 설문지는 1차적인 체질감별에 있어서 상당한 유의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방면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타당성을 확인시키고 설문지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결 론

설문지를 통한 체질진단과 전문가가 체질진단한 것의 연관성을 통계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지로 체질감별한 것에서 태양인이 1명 나온 것은 유의성이 없다.
2. 소양인에 대한 ROW PERCENT는 52.94%로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는 75.00%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3. 태음인에 대한 ROW PERCENT는 92.00%로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는 76.67%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4. 소음인에 대한 ROW PERCENT는 86.36%로 상당히 높은 신뢰성이 있었고, COLLUM PERCENT는 82.61%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5. 이 방법은 소양인을 체질감별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었고, 태음인과 소음인을 체질감별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아주 높았다.

6. 소양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9명을 차지해 13.85%로, 태음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23명을 차지해 35.38%로, 소음인은 전체 65명 중에서 19명을 차지해 29.23%로, 태양인은 65명 중에 1명도 없어 0.005로 나타났다. 이 때 설문지와 전문가가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14명으로 전체 65명의 21.90%를 차지했다.

따라서 설문지로 1차적으로 체질감별하는 것이 전문가가 직접 체질감별하는 것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방면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타당성을 확인시키고 설문지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1. 권영식:사상방약합편, 서울 행림서원 1973 pp.37-42
2. 박인상:동의사상요결, 서울 행림서원 1974 pp.3-6
3. 송일병:알기쉬운 사상의학, 하나미디어 서울 1993 pp.57-65
4. 오창학:오경테스트와 수지침,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1 pp.35-38
5. 이명복:체질을 알면 건강이 온다, 서울 대광출

판사 1993 pp.43-87

부 록

6. 이병행:침도원류증마 서울 행림서원 1974 pp.347-348

7. 이제마: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출판사 1990 pp.23-168

8. 이홍준:의학통계학 서울 청문각 1993 pp.60-63, PP.99-125

9. 고병희: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87 Vol.8 No.1. pp.146-160

10. 권도원:체질침 대한의학회보 1965 통권 16권 pp.25-28

11. 김문성:사상체질감별법과 경험방공개 대한한의학회보 21회 1966 pp.40-41

12. 김수범: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3. 박석연:사상두부촉진법 의림지 147권 pp.62-64

14. 성수경:사상의학 체질감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8

15. 오세정:동의수세보원에서 본 사상인체질감별법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16. 정원조:사상체질감별에 있어서 한약을 이용한 오-링 테스트 결과보고 대한한의학회지 1993 Vol.14 No.2. pp.98-105

17. 한희석:내가 보는 사상감별법 의림49호 1965 p.24

18. 허만희: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2 Vol.4.No.1. pp.107-148

1:태양 2:소양 3:태음 4:소음

설문지로 감별한 체질:1994년 9월 13일

전문가가 감별한 체질:1994년 9월 14일

번호	설문지 감별체질	전문가 감별체질
1	4	4
2	3	3
3	4	4
4	3	3
5	2	4
6	4	4
7	2	2
8	2	3
9	3	3
10	3	3
11	4	4
12	4	4
13	3	3
14	2	2
15	2	2
16	4	2
17	4	3
18	3	3
19	4	4
20	4	4
21	3	3
22	3	3
23	3	3
24	4	4
25	4	4
26	2	2
27	2	2
28	3	3
29	2	3
30	3	3

번호	설문지 감별체질	전문가 감별체질
31	4	4
32	3	3
33	4	2
34	4	4
35	3	3
36	4	4
37	4	4
38	3	4
39	3	3
40	3	3
41	2	2
42	4	4
43	3	3
44	3	3
45	4	4
46	1	3
47	3	3
48	3	3
49	2	3
50	4	4
51	2	2
52	2	4
53	3	3
54	4	4
55	2	4
56	2	3
57	3	3
58	2	2
59	2	3
60	4	4
61	3	3
62	3	3
63	3	2
64	2	2
65	4	4